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년 상반기에 2천370억 원 집중 공급

✎ 김기준 기자 | ④ 승인 2024.12.18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오는 30일 민생안정 비상경제 특례보증 125억 원을 푼다.

이어 2025년 상반기까지 2천370억 원 규모를 집중 지원, 계엄 후유증으로 붕괴 직접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어줄 방침이다.

18일 인천신보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다.

신보 재단 조사연구실의 긴급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며, 88.3%는 방문 고객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96.5%가 신용보증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신보는 보증 처리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보증 비율도 기존 20%에서 70%까지 확대, 소상공인 접근성을 높인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도 적극 나서 새출발기금과 채권소각을 활용, 49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장기분할 상환 구조를 늘려, 상환 부담도 줄여 나간다.

오는 1월에는 인천시, 중기청, 재단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대1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무수 이사장은 "시의 긴급지원 대책에 발 맞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재도약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hoilbo.co.kr



김기준 기자 gjkim@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